



www.smcnews.or.kr

중소기업의 사업·일자리 전환을 위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작성일 : 2023-06-09 16:42

기자 : 임혜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노길준)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광진)는 6. 9.(금)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과 채용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서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조혁신지원사업’은 사업전환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참여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진단·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전환 자금과 세제 혜택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구조혁신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필요한 직무 교육 및 전직 지원 비용(‘노동전환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구인 애로 요인을 분석·진단하여 고용여건 개선에서 채용지원서비스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기업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 (노동전환고용안정지원금)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가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 (기업도약보장패키지)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발굴하여 고용 여건 등 애로 요인을 진단, 정부·민간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여건 개선 후 채용까지 지원하는 종합지원서비스 또한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청년 인재 채용 및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의 연계·지원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규직 근로자)」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사업의 홍보, 참여수요 발굴, 연계 지원 등에 협력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라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에 기업지원금과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기업의 채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지속하여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기업과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